

4~5》 길게 읽기 – PRIME 사업



6~7》 대학알리미 상세 분석



2015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안내

수강신청기간 : 12월 14일(월) 10:30 ~ 12월 15일(화) 17:00
등록금 납부기간 : 12월 16일(수) ~ 12월 18일(금) 16:00
수업기간 : 2015년 12월 16일(수)~2016년 1월 14일(목)



민주동산(구 고헌문화동산)에
故 이수병 선생 동상 생겨

故 이수병 선생 동상 제막식을 시작으로, 민주동산에는 우리학교에서 민주화 운동에 힘썼던 인물들의 동상이 더 생길 예정이다. 경희총민주동문회 관계자는 “故 이수병 선생의 동상을 첫 번째로 정한 이유는 우리학교에 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있지만故 이수병 선생이 가장 대표적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PRIME 사업’ 추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향후 공학계열 인재 27만 7천 명 부족 예측 ... 2천억 이상 사업비, 주요대학 ‘올인’ 현상

2016년 추진 예정인 PRIME 사업이란?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2015년 교육부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교육’,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개혁 6대과제’를 설정했다. 2016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은 교육개혁 6대과제 중 하나로,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대학에서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학사구조와 제도 개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CORE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 사업’의 총 3가지 갈래로 나뉜다. 이 중 대학들의 관심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쏠리고 있다. CORE 사업에 정부 예산 344억 원이 편성되었고 평생교육 사업에 정부 예산 300억 원이 편성되었는 것에 비해, PRIME 사업에는 그 6배에 달하는 정부 예산 2,062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PRIME(Program for Industry needs Matched Education) 사업은 사회변화와 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대학의 체질개선을 통해 우리사회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교육

부의 입장은 정부 축이 지니고 있는 미래 인력수급 전망에서 기인한다. 정부는 향후 공학계열 인력 수급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일례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부터 2023년에 걸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보면 향후 공학계열은 27만 7,000명이 부족하는데 비해 인문·사회계열은 6만 1,000명, 자연계열은 13만 4,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5년 교육정책으로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내세운 셈이다.

PRIME 사업은 ‘다양한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모범적인 학생 중심의 교육개혁 성과가 널리 확산되도록’ 한다는 목적 하에 사업 유형을 두 개로 분리했다. ‘사회수요 선도

대학’을 선발하는 대형 사업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을 선정하는 소형 사업이 그것이다.

우선 대형 사업은 사회변화와 산업수요를 고려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조정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으며 총 9개교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형 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대학이 자발적으로 진로와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만한 학과를 개발, 도입하여 학생의 커리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소형 사업은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내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총 1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5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동티모르 피스커피사업 총괄한
손혁상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평화

최재원 기자 jankin1997@khu.ac.kr

지난 8월 우리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에서 동티모르 ‘피스커피사업’의 현장 리포트를 《한 잔의 커피, 한 잔의 평화》라는 책으로 펴냈다. 피스커피 사업의 본래 명칭은 ‘동티모르 커피공정무역 자립화’를 통한 빈곤퇴치 모델구축: 생산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청년참여 통합적 방식’이다. 기존의 공정무역이 원두 제값받기 차원에서 진행된 움직임이었다면, 피스커피 사업은 원두의 재배, 가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들으로써 기존 ‘공정무역’ 대비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향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개발협력 사업이다.

오랜 식민지 역사와 내전을 겪었던 동티모르는 높은 인구증가율에 비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와 기초 인프라가 부족해 빈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NGO와 구호활동단체가 앞장서 동티모르 복구에 힘썼지만 오히려 이들의 지원이 악영향을 끼쳤다. 공여국의 전폭적 지원은 동티모르 주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자립능력을 상실케 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피스커피 사업팀은 자립화를 통해 동티모르에 만연한 빈곤을 퇴치하고 더 나아가 공여국의 도움 없이도 자생 가능한 사회적 경제 모델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피스커피 프로젝트의 총괄책임자를 역임한 손혁상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을 만나 동티모르에서의 2년을 들어보았다.

2012년 4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모한 대학협력사업에 우리학교 국제개발센터가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동티모르와 우리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 인

연이 시작됐다.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는 한국 YMCA 전국연맹(YMCA)과 함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2년 간, 동티모르의 수도인 딜리시(市)와 마누파이드(道) 사메군(郡) 로뚜뚜면(面)을 대상으로 피스커피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손 센터장은 “피스커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부터 동티모르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YMCA의 지역개발사업 덕분”이라며 겸손의 태도를 보였다.

주민들을 시혜적인 사업대상자로 여기지 않고 지역발전을 일궈내는 주체로 인식하는 YMCA 사업 방식은 곧 현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다만 2012년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가 현지 사전 조사를 실시했을 때에는, 주민들의 공정무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더러 YMCA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YMCA의 약점을 우리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의 역량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손 센터장은 “YMCA는 자립적인 마을 생활단위나 주민조직을 형성해야 한다는 실천의지와 다년간의 풍부한 현지경험을 갖고 있었다”며 “국제개발센터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연구, 연수, 교육, 컨설팅, 개발도상국 현지 프로젝트 등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커리어를 갖고 있었다”며 “두 단체의 강점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낸 덕에 피스커피 사업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 시발점이 바로 ‘주민조직화’를 위한 생산자그룹 구성 사업이다. 이러한 주민조직화는 자립적 생산자 협동조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12면으로 이어짐

개인, 집단으로부터의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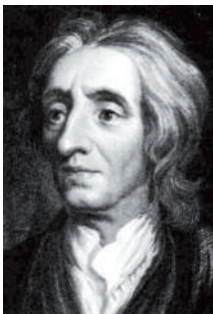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 ⑥

이영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개인이라는 말이 한국어에서 사용된 것은 백 년 밖에 되지 않았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개인이 없었는가? 그렇다.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로서의 개인은 19세기까지의 동아시아에서는 없었다. 사실 이러한 사정은 전근대시대 인류 문명 모두가 동일하다. 개인이라는 말이 서양 세계에서 등장한 것도 불과 몇

백 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이 개인으로 여겨진 것은 유럽인들이 근대세계를 발명하면서부터이다.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이라는



로크는 미국의 개척자들로부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철학을 정립했다고 한다

뜻의 indivisible에서 파생된 ‘개인(indivisual)’이라는 단어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5세기부터다. 르네상스 시기에 이르러 이전까지 신 중심이던 세계관이 인간 중심의 세계로 재편되면서 더 이상 나뉠 수 없는 단수로서의 개인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가진 개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가 17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 사조가 일어나면서 철학, 법률, 사회이론 등에서 개인주의가 적극적으로 발현되었고 개인이라는 개념은 인간과 세계를 파악하는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긴 인류사에서 보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개인이라는 말과 그에 상응하는 개념은,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설령 이해되더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혹시 받아들여지더라도 문명권에 따라, 그리고 나라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인의 결정권이 상당히 제한된 이슬람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진 미국 같은 곳도 있다.

▶11면으로 이어짐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대학 교육의 ‘질 보증제도’의 필요성

오환석 (기계공학)교수 >>11면

